

2015. 12. 28  
(15-100호)

# KB 지식 비타민

: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인식 변화와 최근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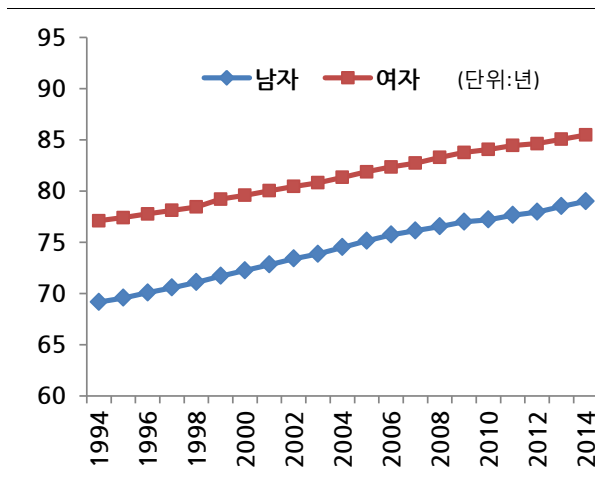
-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이해
- 웰다잉 관련 최근 이슈
- 전망 및 시사점

삶을 잘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(well-being)에서 삶을 잘 마무리 하고자 하는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‘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’, 일명 웰다잉(well-dying)법이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## ■ 웰다잉(well-dying)에 대한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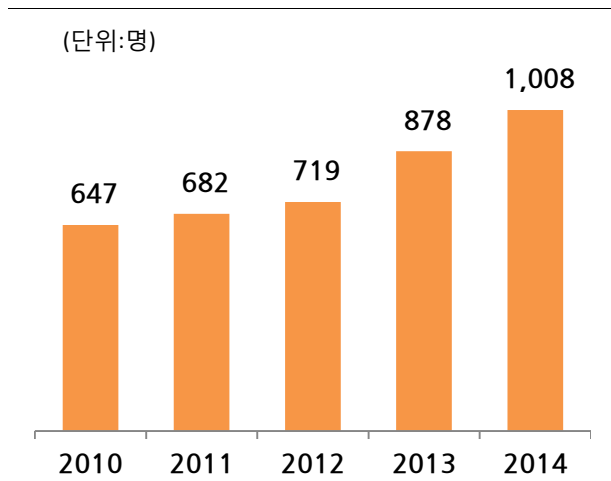
- 기대 수명의 증가,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, 고독사, 무연사<sup>1</sup> 등 사회적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 ‘삶을 잘 마무리 하는 것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
  - 2014년 출생한 남자의 기대여명은 79.0세, 여자는 85.5세로 1994년도에 비해 각각 9.8년, 8.4년 증가
  - 2014년 무연고 사망자는 1,00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, 고독사는 연간 1.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<sup>2</sup>

[그림 1] 연도별 기대여명



자료: 통계청

[그림 2] 무연고 사망자 추이

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‘웰빙(well-being)’과 함께 ‘아름다운 죽음’, ‘준비하는 죽음’, ‘존엄한 죽음’, ‘안락한 죽음’ 등 죽음의 질을 높이는 ‘웰다잉(well-dying)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
  - 2000년대 이후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풍요의 조화를 통한 자기 만족, 행복 등을

<sup>1</sup> 고독사(孤獨死): 가족, 친척, 사회에서 떨어져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는 것

무연사(無緣死): 고독사 중에서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 등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. 현재 무연사,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음

<sup>2</sup> KBS파노라마 ‘한국인의 고독사’에 따르면 시신 부패 이후 발견된 명백한 고독사는 1,717건,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한 고독사로 의심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11,002건(2014.5)

추구하고자 하는 ‘웰빙(well-being)’ 트렌드 지속

- 2012년 ‘죽음’에 대한 강의로 유명한 예일대 교수 셸리 케이건(shelly kagan)의 ‘죽음이란 무엇인가’ 서적 출간, 2014년 EBS ‘데스’ 프로그램<sup>3</sup> 등을 통해 죽음과 삶, 생명 등에 대한 관심 고취
-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06년 안락사에 반대했으나 2015년 6월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완전한 모욕이며 ‘의사조력자살’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외에서 존엄사, 안락사 등에 대한 논란 증대<sup>4</sup>
- ‘웰다잉(well-dying)’은 ‘죽음’이라는 단어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,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가짐과 구체적 실천 행위 등 죽음에 대한 심리적, 육체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준비과정을 일컫기도 하고 의료학적으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완화 치료 등을 의미함<sup>5</sup>

## ■ 웰다잉 관련 최근 이슈

- [완화의료 및 연명의료]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 중단과 말기 암환자 등의 고통과 증상을 완화하는 의료에 대해서는 윤리, 종교, 법과 의학적 문제 등에 대한 논란 지속
- 201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‘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’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국내에서도 환자 본인 의지에 의한 존엄사가 가능할 예정
  - 2008년 식물인간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
  - 2009년 2월 고 김수환 추기경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킴
  - ‘인간 생명 존중’ 차원에서 종교계의 존엄사 반대 의견도 존재

<sup>3</sup> ‘데스(Death)’ 프로그램: 역사학, 물리학, 심리학, 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해 죽음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를 3부작으로 방영(EBS, 2014년 11월)

<sup>4</sup> 의사조력자살(assisted suicide):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

안락사(euthanasia):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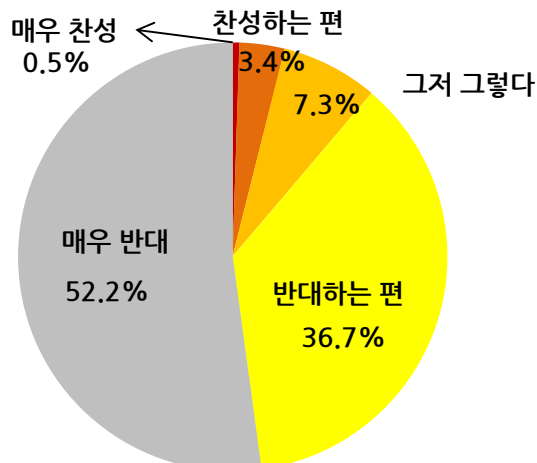
존엄사(death with dignity):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안락사의 하나의 방식(소극적 안락사)

<sup>5</sup> 완화치료(palliative care):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의 통증과 심리적, 사회적 문제들을 조절하는 의료

연명의료(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): 의식불명 및 회복 불가능 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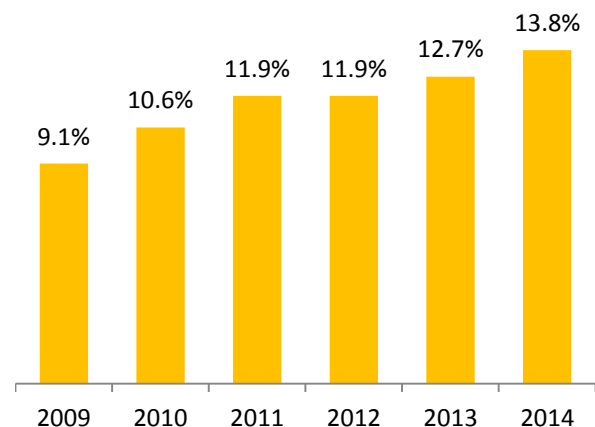
- 임종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 수준을 나타내는 죽음의 질 지수(Quality of Death Index)<sup>6</sup>에서 영국은 93.9점으로 1위, 한국은 73.7점으로 18위(2015년)
  - 생애 말기 완화의료를 위한 의료진 및 의료 비용은 각각 13위, 공동 6위이나 완화의료 환경은 20위로 의료수준에 비해 완화의료 케어 수준은 낮은 편
  - 2015년 9월 현재 호스피스 병상 수는 62개 기관 1,018병상으로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,400개로 확대 예정<sup>7</sup>
-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88.9%가 연명치료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,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하면 낮은 수준<sup>8</sup>
  - 영국 및 미국의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각각 95%, 43% 수준
  - 국내 말기암 환자의 30%는 사망 마지막 한 달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미국 말기암 환자 항암치료 비율 10%에 비해 높은 수준

[그림 3]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



자료: 노인실태조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[그림 4] 호스피스 이용률



자료: 보건복지부(2015.10.21)

- 해외 각국에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치료의 찬반 논란이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존엄사, 안락사를 허용하고자 하는 여론 및 법률 제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
  -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 등이며 영국에서의 안락사는 불법, 프랑스에서는 일부 판례에 근거한 존엄사 허용
  -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영국에서는 2015년 8월 70대 여성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

<sup>6</sup> 죽음의 질 지수(Quality of Death Index): the palliative and healthcare environment, the human resources, quality of care, affordability of care, community engagement 등의 5개 영역, 20개 정량지표를 100점수로 산출(Economist Intelligent Unit)

<sup>7</sup> <http://hoispice.cancer.go.kr>

<sup>8</sup> '2014년 노인실태조사'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'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.8%'(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2015.10.21)

[표 1] 국가별 안락사 및 존엄사 허용 현황<sup>9</sup>

국가	내용
네덜란드	2002년 ‘안락사법(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)’ 공식 합법화
미국	1994년 오리건주 ‘존엄사법(Death with Dignity Act)’ 제정 이후 워싱턴주, 몬타나주, 버몬트주, 캘리포니아주 등 전체 5개주에서 합법화, 20여개 주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
프랑스	2004년 ‘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법(end-of-life law)’ 제정,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 할 수 있음
타이완	2000년 아시아 최초로 ‘자연사법(Natural Death Act)’ 도입

○ [‘죽음(Death)’교육] 학문적, 철학적 관점에 강의 되어온 ‘죽음’교육은 비영리단체 및 정부 주도로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‘죽음학’<sup>10</sup>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

- 죽음에 대한 교육은 의대 및 철학과 등의 교과목에서 확대되어 학회, 비영리 단체, 정부 등의 학술대회, 세미나,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논의되기 시작
  - 서울대 의대, 한림대 철학과 등에서 죽음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한림대학교내 2004년 ‘생사학(生死學) 연구소’가 개설되기도 함
  - 서울시에서는 ‘2015 서울생사문화 주간 및 국제심포지엄’을 개최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‘웰다잉 교육과정’ 시범 운영 후 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<sup>11</sup>
- 죽음교육은 죽어가는 것(dying), 죽음(death)에 대한 이해,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 등의 사고적 측면에서 시작되어 연명의료계획서, 사전장례의향서, 사전의료의향서, 임종노트 등의 작성, 장례문화체험 등 실행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진행<sup>12</sup>
  - 연명의료계획서(POLST), 사전의료의향서(AD) 등은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말기암환자 등의 대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
  - 타이완의 경우, 정부 및 민간단체, 유명인사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구의 0.8%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신청서 내용이 의료보험카드 IC칩에 저장되어 의식불명상태가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<sup>13</sup>

<sup>9</sup> ‘한국선 존엄사 가능한가..나라별 찬반이 나뉘는 이유’(한국일보, 2014.11.4) 및 신문기사 참조

<sup>10</sup> 죽음학(thanatology): 종교학, 철학, 심리학, 간호학, 사회학, 의학 등 여러 방면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며 임종영성학, 임종학 등으로 불리기도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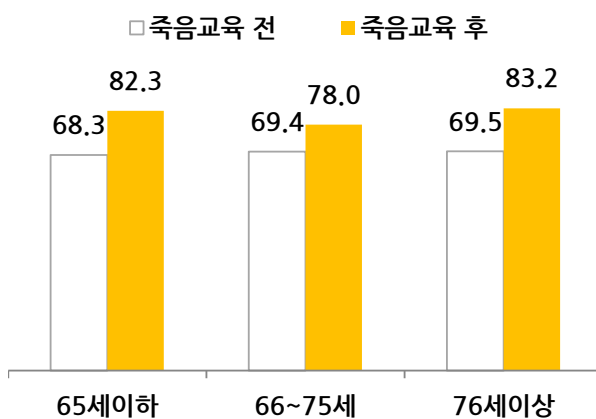
<sup>11</sup> ‘건보공단, 웰다잉(well-dying)준비 교육과정 운영’(국민건강보험공단, 2015.8.4)

<sup>12</sup> 연명의료계획서(POLST: Physician Orders for Life-Sustaining Treatment):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상태, 치료 방법, 연명의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, 사전의료의향서(AD: Advanced Directives):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 사전에 임종 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향을 표시

<sup>13</sup> ‘대만, 말기환자 집으로 의사보내 돌봐, 13년 善終 프로젝트 결실’(프리미엄조선, 2013.11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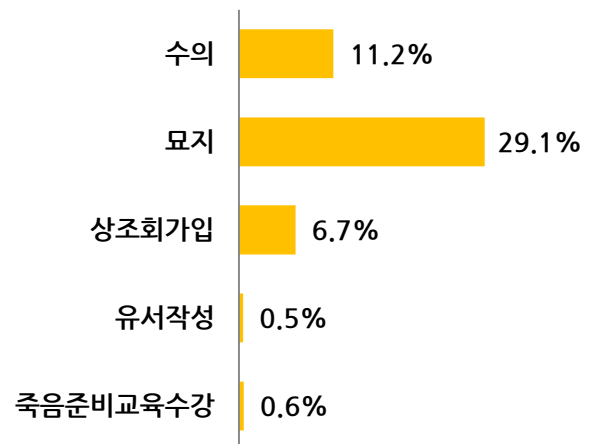
- 국내에서 ‘죽음학(thanatology)’은 최근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1963년부터 대학교 과목으로 강의되고 있음
  - 평안한 임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‘호스피스’와는 다르게 ‘죽음학’은 다양한 학문의 연구를 통해 철학적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는 것
  - ‘죽음교육전문가(싸나톨로지스트)’는 죽음학을 토대로 교육하는 전문가로, 미국죽음학회를 통한 국제인증 후 교육 활동이 가능함<sup>14</sup>
-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죽음을 위한 준비 중 유서작성, 죽음교육수강 등은 아직 낮은 수준
  - 65세 이상 노인 대상 죽음교육 이후, 죽음에 대한 두려움, 불안 및 수용의 복합적인 태도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<sup>15</sup>

[그림 5]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



자료: Korean Gerontology Society

[그림 6] 죽음준비 실태(복수응답)



자료: 노인실태조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- 영국은 매년 5월 ‘죽음 알림 주간(Dying matters Awareness Week)’, ‘아콘 프로젝트(Acorn Project)’ 등을 통해 다양한 죽음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함<sup>16</sup>
  - ‘죽음 알림 주간’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깨고, 죽음에 대한 사회적 준비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진행
  - ‘죽음을 맞이하기 좋은 날’ 행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인조모형으로 죽은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

<sup>14</sup> 미국죽음협회(ADEC): 1976년 설립된 죽음과 사별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가장 오래된 비영리단체. 싸나톨로지스트(thanatologist, 죽음교육전문가): 미국죽음협회와 협약을 통해 한국싸나톨로지협회에서 교육 및 시험을 통해 국제싸나톨로지스트 인증을 받음

<sup>15</sup> ‘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’(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, 2009)

<sup>16</sup> ‘죽음, EBS 다큐프라임 생사탐구 대기획’(EBS 데스 제작팀, 2014)



- 2010년부터 시작된 ‘아콘 프로젝트’는 6세~대학생들이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, 호스피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를 높이고 죽음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

## ■ 전망 및 시사점

- 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,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한 긴 유병기간 등으로 고독사, 무연사, 완화의료 및 죽음교육 등은 사회적으로 더욱 이슈가 될 전망
  - 남성의 유병기간은 14.1년, 여성은 19.6년으로 기대수명 중 각각 18%, 23% 수준
  -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 28.4%, 여성 16.9%이며 암에 의한 사망확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<sup>17</sup>
- 학교 및 기업, 정부, 지자체 등은 죽음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 및 웰다잉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
  - 죽음 교육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예방 효과도 발생
- 금융기관은 사회적 공헌 차원의 활동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새로운 기회로도 고려해 볼 필요
  - 각 금융기관은 ‘독거노인지원사업’의 일환으로 콜센터 직원과 독거노인간 1:1 안부 전화를 하는 ‘사랑잇기사업’ 추진 중
  - 고령화 및 고독사 문제가 먼저 대두된 일본의 경우, 고독사로 인한 임대주택 주인의 임대료 손실, 주택 보수 비용 및 고독사 노인의 장례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고독사 특화 보험 상품이 출시됨<sup>18</sup>
- 존엄사법에 의한 안락사 남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나,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변화 필요
  - 1994년부터 존엄사법이 시행되었던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, 1998년 처음으로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있었으며 1998년 이후 총 1,327명의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고 실제 실행한 경우는 859건(64.7%)에 해당

<연구위원 서정주(jungju.seo@kbfg.com) ☎02)2073-5773>

<sup>17</sup> ‘2014년 생명표 보도자료’(통계청, 2015.12.3)

<sup>18</sup> ‘일본 ‘고독사보험’ 등장, ‘고인 뒤통수유품정리’ 월 3천원대’(이코노믹리뷰, 2015.12.9)